

제목: "변화된 자의 관심"

말씀: 누가복음 5장 1-11절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과 변화되는 베드로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심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관심으로 변화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심이었습니까?

- 1) 예수님의 관심은 _____이었습니다.
- 2) 베드로의 관심은 _____였습니다.
- 3)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관심은 _____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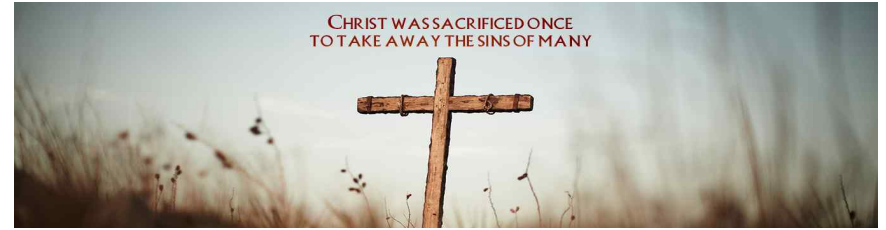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5장 1-1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5: 1-11 신약 95 페이지 Presider
- 말씀 "변화된 자의 관심" 김성민 목사
 Message A change of value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삼립빵)

제자훈련이 있을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역시 빵입니다. 빵 중에도 한국 빵집에서 사온 빵이 제일 인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빵을 좋아하는데 그 중 속에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빵이 제일 반갑습니다. 공보빵도 있고, 앙꼬 빵도 있지만 역시 저는 하얀 크림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어릴 적 기억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서면 큰 길이 있고 저 앞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먹는 것이 “삼립빵”이었습니다. 10원 하던 삼립빵은 저에게 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빵을 사서 봉지를 뜯으면 빵 두 개가 가운데 하얀 크림을 두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림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봉지를 열면서 늘 기대하기는 이전보다 크림이 더 들어있기를 소원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빵에 크림은 늘 그만큼 만 빵 중앙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빵 가장자리부터 먹어 들어가다가 크림이 있는 중간에 가서는 속도를 늦추며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빵을 몇 개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그 크림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크림만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빵에 얹어 먹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봉투를 연 그 빵에 크림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가장자리부터 먹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 습관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첫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된 그 때입니다. 그것을 잊고 산다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빵이고, 크림 없는 빵이 되고 맙니다.

믿음생활을 할 때에 열정이 회복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이 회복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처음 믿을 때에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라도 머리로 더 깨달아 신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맛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맛이 없어진 교회생활이 되며, 맛이 없어진 영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맛이 없어진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아니면 겨우 지탱하는 믿음생활은 아닙니까? 삼립빵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먹은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도, 혼란하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첫사랑이 늘 감격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하얀 크림빵을 먹을 것입니다. 저에게 삼립빵 만한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1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받아 가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